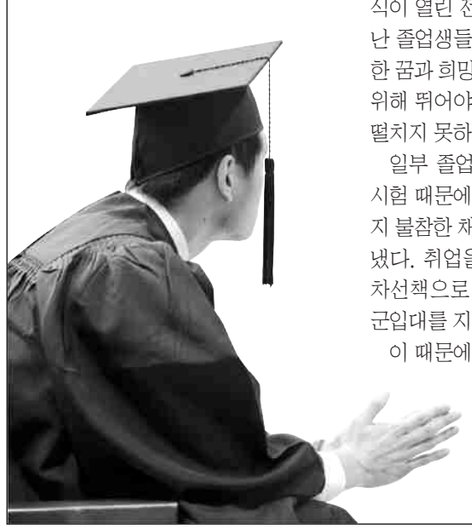
"이젠 백수"…우울한 대학 졸업식

극심한 취업난…기쁨 보다 걱정
축하해주는 부모들 표정도 착잡

최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으로 졸업생들의 표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얼굴에는 대학공부를 마쳤다는 기쁨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24일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만난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커녕 직장을 구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졸업생들은 다가오는 취업시험 때문에 평생 한번인 졸업식까지 불참한 채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당수는 차선책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군입대를 지원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졸업을 축하하는 부모들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았으며, 총장이나 학장들의 졸업 고사도 축하와 격려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55명이 졸업한 전남대 수의대는 지난 해 졸업 전 취업자 수가 6명이었으나 올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택한 학생도 5명에서 15명으로 3배나 늘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공익수의사나 수의장교 등으로 군입대를 자원한 수가 20명이나 됐다.

K(25)씨는 "당분간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3년간 공익수의사로 근무하면서 향후 진로나 취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10명이 졸업한 조선대 경상대학 경제학과도 다른 학과에 비하면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역시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 다른 학과들도 취업률이 10~20% 안팎에 머물기는 마찬가지다.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예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콜센터 근무나 텔레마케터 등 비정규직을 찾는 이들도 늘어 비정규직 취업률은 오히려 지난 해 보다 증가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B(29)씨는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10차례 이상 취업원서를 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올해는 기업들이 더 어렵다는 데 신입사원을 뽑기나 할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졸업 고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25일 열릴 순천대 졸업식에서는 장만채 총장은 고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 총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통사고 사지 마비 기업인

보험금 35억 사상 최고

광주지법 판결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가 모두 마비된 광주지역 기업인에게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최고액인 3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24일 중소기업인 정모(49)씨와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정씨에게 3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에게 500만원을, 두 자녀에겐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연매출 280억원대 화학제품 업체와 60억원대 전자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은 월 평균 소득을 2천4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두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까지로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치료비와 간호비 등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 안전벨트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국내 재판부가 판결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최종 보험금액은 항소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씨측도 항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최대 교통사고 보험금 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결정된 21억원이었다.

정씨는 2006년 10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지가 마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운찬 〈7737〉 김종두

업자 협박 돈 뜯은 기자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공사현장을 돌면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아시아일보 화순 주재기자 김모(47)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화순군 지방산단 조성공사장 야산에서 토사를 파내는 장면을 촬영한 뒤 골재업체 관계자 조모(46)씨에게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

복지법인서 뒷돈 받은 前 광주시청 간부 구속

법인설립 등 각종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아챙긴 전직 광주시청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4일 노인요양시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 광주시청 사회복지과장 김모(60)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2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식당에서 D사회복지법인 대표 J씨로부터 '노인 요양시설 설계비 보조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튿날 부하 직원을 통해 이를 되돌려줬으나 이틀 뒤인 26일 J씨에게 직접 전화해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 며칠 전 받은 돈을 다시 달라"며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김씨는 2007년까지 설립허가와 보조금 수령, 사업비 지원 등의 대가로 H복지원, B요양시설, I복지시설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천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r

주민들 "이렇게 잔인할수가…"

광산경찰 '세 모자 살인사건' 현장검증 … 피의자 영장

자신의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가장은 범행 하루 뒤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광산구 비아동·월계동·쌍암동 일대에서 '세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 최모(29)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최씨는 쌍암동 S공원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를 버리는 장면을 시작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차례로 재연했다.

최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 운동복 차림에 푸른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를 눌러썼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몰려들자 고개를 푹 숙였다. 광산경찰 형사과 장정근 1팀장이 "흉기를 어떻게 버렸느냐?"고 묻자, 최씨는 담담한 자세로 현장검증에 임했다.

이어 최씨는 월계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갈아입고 다친 부위와 혈흔을 닦아내는 모습도 재연했다. 최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비아동 H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부인(30)과 큰 아들(4)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작은 아들(2)을 불에 타 숨지게 한 장면을 연출했다.

최씨는 집에서 숨진 세 모자 대신 재연에 나선 의경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시늉과 불을 지르는 장면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경찰이 설치한 출입통제 선을 넘고 들어온 한 주민은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몸을 떨었다. 순간 최씨도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이날 1시간30분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내 얼굴을 감추려는 듯 연신 모자 챙을 잡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화물질 구입처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일 방화로 불에 탄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H아파트 1층 최모(29)씨의 집에서 최씨가 부인과 큰 아들을 흉기를 찔러 살해한 뒤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리 직위해제 경찰, 검사실 불 질러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2층 담당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A4용지를 뭉치로 말아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훔친 귀금속 신분증 위조해 팔아

쌍나팔

○…동네 친구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길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을 위조해 금은방에 내다 판 10대 청소년 4명이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송모(16)군 등 4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친구 김모(16)군의 집 안방에서 금목걸이 등 시가 2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송군 등은 김군에게 "너희 집에서 세수 좀 하자"고 속인 뒤 집에 따라가 안방에 있던 귀금속을 훔쳤으며 우연히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인 위조 신분증을 이용, 광주의 한 금은방에 장물을 처분.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